기억과 전망

Memory & Future Vision

2009년 통권 20호

책 머리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님을 보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1988년 정치에 입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2002년 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런 이행과 공고화론이 무색하게 된 2009년 5월,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을 우리 가슴 깊이 묻었다고 말했고, 또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어떤 이는 바보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로마시대에 예수를 핍박한 본디오 빌라도가 영원히 억압자의 상징으로 기억되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기억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국현대사에서 수많은 희생양들을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쳤지만, 희생의 크기에 비해 책임의 문제는 항상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억의 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한국사회는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다가 1997년 결정적인 후퇴를 경험했다. 경제성장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이 '초유의 사태'에 당황해했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때도 한국인들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 버팀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기대였다. 1980년의 비극 이후 한국정치는 대통령이 바뀌는 5년마다 꾸준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런 믿음은 깨지고 있는 듯하다. 경제가 후퇴할 수 있는 것

처럼, 정치도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한국민주주의의 진전 20년' 이 한 번의 주기를 마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잃어버린 10년' 론에 동조했던 사람들조차 지난 10년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분은 우리의 한 전직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대통령 후보일 때, 나는 그를 싫어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그저 그랬다. 그가 대통령을 퇴임한 후 나는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죽음' 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할 가치들, 화해나 관용이라는 덕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는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이런 정치문화적인 요인 이외에 '승자독식' 이라는 제도와 취약한 '대의' 체계에도 존재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치에 입문하면 시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기 쉽고, 더구나 특정 정당과 연결될 때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기억과 전망』 20호에서 한국 정당의 위기를 다루는 4편의 특집 논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논단에서는 대학의 비정규직 강사문제를 다루고, 일반논문으로 5편의 논문을 실었다.

지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억과 전망』을 사랑하시는 독자들께 편집위원회의 변화를 알려드린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를 이끌어 오신 정해구 교수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주신 김원, 김정훈, 오유석, 전재호, 정상호, 홍석률 선생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지난 편집위원들은 『기억과 전망』을 본격적인 학술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본지를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기초를 놓아주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올해에 새롭게 편집위원을 위촉하였다. 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해오신 김서중, 박명림, 박헌호, 정일준, 조석곤, 황정미, 홍석률 선생을 편집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다. 편집위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29일, 정근식